

불결한 철장 속 팔러가는 반려동물의 비애

송정·담양5일장 판매현장 가보니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찾은 담양군 담양읍 '담양5일장', 70대 여성 상인 2명이 각각 비좁은 철망(가로 1m×세로 50cm×높이 50cm)에 집토끼(몸길이 50cm) 10여 마리를 가둬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토끼들은 힘 없는 모습으로 철창 한 칸에 놓인 물을 마시거나 열무다발을 뜯어 먹고 있었다. 철장 바닥에는 토끼 분뇨가 치러지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40년간 담양5일장에서 동물을 판매했다는 한 상인은 "장이 열리는 날마다 나를 포함해 상인 3명이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소규모로 팔고 있다"며 "최근 시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면 동물 학대라는 말이 들려 오라는 토끼만 가져 왔다"고 말했다.

23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5일장' (3·8

전염병 등 질병관리 취약 동물보호단체-판매상인 갈등 불법동물시장 폐쇄 촉구 고발 등 법적 다툼 비화도

일)에서도 한 상인이 노상에서 개·고양이를 팔고 있었다. 둘레 2m 철조망 안에는 잡종 강아지 8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철망(가로 70cm×세로 70cm×높이 50cm) 안에는 어른 주먹 크기 만한 새끼 고양이 10여 마리가 뒤엉켜 있었다. 상인들은 피약발을 막아주기 위해 종이박스로 철망을 덮어놨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담양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서 동물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곳은 담양5일장·장평시장·영산포장·남평5일장·장성5일장·송정5일장 등 10여 곳에 달한다. 정확한 취급 종류와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비좁은 우리에 동물 수십 마리를 몰아넣고 판매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이며, 동물들이 좁은 우리 안에서 사료와 물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통신내 내 동물판매업자들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 질병관리에 취약하고 분뇨처리시설마저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물 판매상인들은 충분한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단체와 소규모 동물판매상인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동물단체들은 전통시장 내 동물판매 행위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심지어 동물

판매 상인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 이하 동물을 판매할 때 최소 3차 예방접종, 1개월 전 광견병 1차 접종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각 개체당 몸 길이의 두배 이상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두시간 단위로 급여해야 한다.

광주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등 지역 24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2일 담양 5일시장을 시작으로 매달 두 차례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동물시장 폐쇄 촉구 규탄집회를 열 방침이다.

담양군청 관계자는 "동물 판매상들은 군에서 발급하는 가족거래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노령인 탓에 신고증 발급에 무관심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담양군 담양읍 '담양5일장'에서 한 상인이 비좁은 철조망에 개와 고양이 수십마리를 가둬놓고 판매하고 있다.



광주시캣맘협의회 등 24개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담양5일장'에서 '동물불법판매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용원 업주 살해·방화 20대 징역 30년 선고 선거운동 대가 금품수수 등 17명 유죄

퇴폐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60대 여성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했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여종업원을 끌고 나와 협박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한 이 업소가 있는 건물 입구의 CC-TV도 회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남도교육청 후보 관계자 17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6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7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는 A씨와 공모해 유세 차량 임대 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려 국가

로부터 3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C(5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 14명은 15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시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된 금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주거침입 시도 혼자 사는 여성 대상 잇단 범죄 '공포'

광주서부경찰, 40대 구속 광양선 길가던 여성 추행도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도 동일한 범죄가 발생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지난 19일 새벽 혼자 사는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려한 김모(4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에 들어가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노숙자인 김씨는 오피스텔 근처를 배회하다 술에 취한 여성이 김씨를 문에 손을 넣어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막았다. 김씨는 여성과 40초 가량 실랑이를 하다 문이 닫히자 한동안 문 앞을 서성이다 3분 여 뒤 다시 초인종을 누

르며 집안에 머물렀다.

여성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지인을 통해 사건이 접수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오피스텔에서 1km 떨어진 한 병원 계단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절도 행각을 시인했으나, 강간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김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양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양경찰은 23일 심야시간 주책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0시 20분께 광양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겨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100m 정도 뒤쫓아가 성추행하다 여성이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폭우 속 차량 충돌사고 15명 중경상

22일 오후 곡성에 시간당 2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농작업을 하고 되돌아가던 미니버스와 SUV차량이 충돌해 15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다.

22일 오후 5시 50분께 곡성군 옥과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곡성군 입면에서 감자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인부를 싣고 옥과면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니버스(운전자 김모·59)와 마주오던 렉스턴 승용차(운전자 이모·58)가 충돌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이 사고로 미니버스가 도로 옆 1.5m 아래 논으로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김씨와 승객 등 14명, 렉스턴 운전자 이씨 등 모두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곡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66.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찰은 렉스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만취 여성간호장교, 클럽서 남성 추행하고 지갑 절도 미수까지



○...클럽에서 20대 남성들을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려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강제추행과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

○...23일 서울강남경찰에 따르면 간호장교 김모(23)씨가 이날 새벽 4시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한 클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군인 신분증을 찾겠다며,

남성 2명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 가려 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김씨는 피해 남성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지 말라며, 신체 주요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헌병대에 인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6527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8214002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도양빌딩

문의 1566-9988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배터리 1+1 추가 증정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상무대로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